경상남도 여성가족정책 브리프

BRIEF

Gyeongsangnamdo Women & Family Foundation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2025. 03 Vol 44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240 T. 055-713-7074 F. 055-713-7093 www.gnwff.or.kr

박지영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경남지역 청소년의 가치관과 시사점[1)]

01. 조사 개요

02. 경남 및 전국 청소년의 생활(삶)에 대한 인식

03. 경남 및 전국 청소년의 진로와 미래에 대한 인식

04. 경남 및 전국 청소년의 가족과 결혼에 대한 인식

05. 시사점

- 최근 우리 사회는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급격한 사회환경의 변화는 사람들의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빠른 사회변화만큼 개인의 가치관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임성근 외, 2022)

- 다양한 세대의 가치관 중 청소년 세대의 가치관은 개인적·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음. 개인적 측면에서는 청소년기에 형성된 가치관이 근본적인 가치로서 생애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고, 사회적 측면에서는 미래세대의 가치관은 향후 사회변화를 움직이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임(임희진, 황여정, 2023)

- 이렇듯 청소년의 가치관은 현재 청소년 정책 수립 및 실행에 도움을줄뿐만 아니라, 향후 사회 정책 방향에 대한 단초를 제공하므로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음. 이에 청소년 세대의 가치관 영역 중에서 시의성이 높고 미래사회에서 청소년들의 삶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안 이슈들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음(민보경 외, 2019; 오해섭, 문호영, 2020; 임희진, 황여정, 2023)

- 그간 전국 단위에서 청소년 세대의 가치관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영역에서 청소년들이 어떠한 가치를 추구하는지를 분석한 연구는 이루어져 왔으나, 경남지역의 청소년의 가치관을 검토한 자료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남녀 청소년의 행위와 차이 등에 대해 주요 영역별로 알아보고, 성역할 의식 및 성평등에 대한 관점을 파악하는 것(최윤정 외, 2020) 역시 중요하나 그 또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임

- 따라서 본 고에서는 전국 및 경남지역 청소년이 일과 생활, 결혼 및 자녀, 양성평등 등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비교하여 살펴봄으로써 청소년 세대의 특성을 이해하고, 청소년의 인식을 기반으로 한 정책 지원 방안에 관련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1) 본 내용은 2023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수행한 [2023 청소년 가치관 조사 연구(임희진, 황여정, 2023)]의 데이터를 활용한 것임

01. 조사 개요

조사개요

- 2023 청소년 가치관 조사는 전국의 초5~고3에 재학 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생활, 가족과 결혼, 진로와 미래, 학교와 친구, 사회와 국가·역사 등 다양한 영역에서 청소년 세대의 가치관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된 연구임
- 해당 조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조사는 조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2023년 5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실시하였음
- 전체 응답자는 319개 학교에서 조사되었고 최종 유효 표본 수는 7,718명이며, 여성 청소년은 3,735명(48.4%)이었고, 남성 청소년은 3,983명(51.6%)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남 청소년은 총 554명이며, 이 중 여성 청소년은 256명(46.3%), 남성 청소년은 298명(53.7%)임
- 분석은 <표 1>과 같이 생활 영역, 진로와 미래 영역, 가족과 결혼 영역 중의 일부 조사 내용을 활용하여 전국 및 경남 청소년 간의 차이를 살펴보았으며, 조사결과는 가중치를 적용한 가중표본 비율 또는 평균으로 제시하였음

표1 조사 내용

영 역	조사 내용
생 활	행복감
	일과 여가에 대한 인식
진로와 미래	직업관
가족과 결혼	결혼관
	자녀관
	양성평등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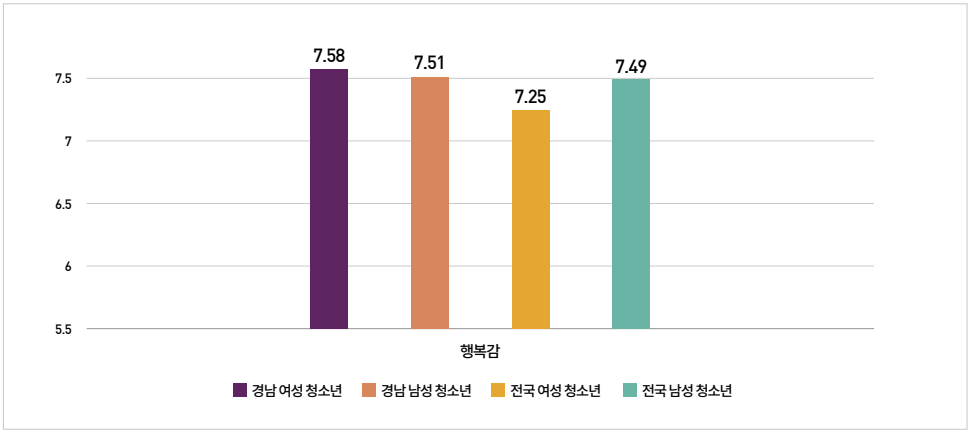
02. 경남 및 전국 청소년의 생활(삶)에 대한 인식

행복감

- 경남 및 전국 청소년들이 어느 정도 행복하다고 생각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 질문을 제시하고 10점 척도로 조사하였음
  - '여러분의 주변 상황을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 행복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경남 청소년은 7.54점(여성 청소년 7.58점, 남성 청소년 7.51점), 전국 청소년 평균은 7.37점(여성 청소년 7.25점, 남성 청소년은 7.49점)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남
- 경남지역의 청소년들은 전국 청소년의 평균 점수보다 다소 높게 행복감을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국의 경우, 남성 청소년보다 여성 청소년이 행복감에 대한 인식이 다소 낮은 편으로 나타남

그림 1 경남 및 전국 청소년의 행복감

(단위: 점)



* 10점 척도

일과 여가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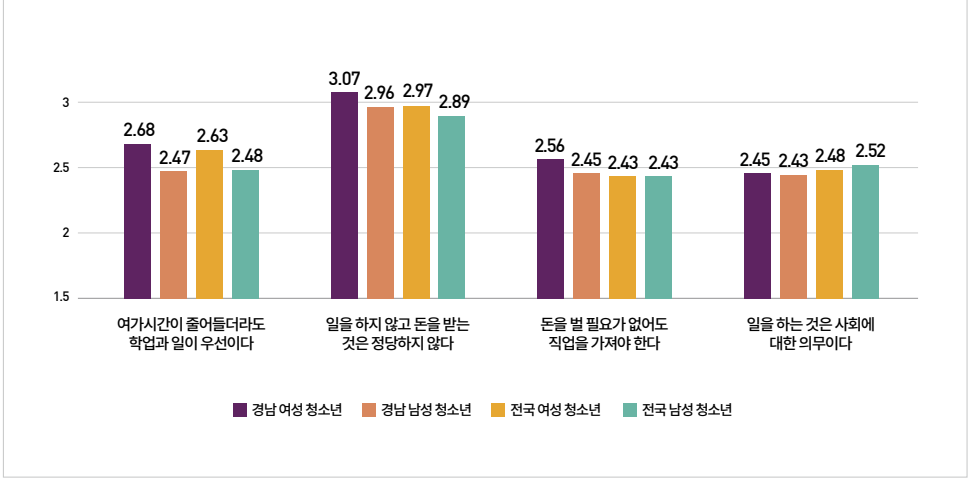
■ 경남 및 전국 청소년들의 일과 여가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질문을 제시하고 4점 척도로 조사하였음

- '여가시간이 줄어들더라도 학업과 일이 우선이다'에 대해 경남 청소년은 2.57점(여성 청소년 2.68점, 남성 청소년 2.47점), 전국 청소년 평균은 2.55점(여성 청소년 2.63점, 남성 청소년은 2.48점)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일을 하지 않고 돈을 받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에 대해 경남 청소년은 3.01점(여성 청소년 3.07점, 남성 청소년 2.96점), 전국 청소년 평균은 2.93점(여성 청소년 2.97점, 남성 청소년 2.89점)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돈을 벌 필요가 없어도 직업을 가져야 한다'에 대해 경남 청소년은 2.50점(여성 청소년 2.56점, 남성 청소년 2.45점), 전국 청소년 평균은 2.43점(여성 청소년 2.43점, 남성 청소년은 2.43점)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일을 하는 것은 사회에 대한 의무이다'에 대해 경남 청소년은 2.44점(여성 청소년 2.45점, 남성 청소년 2.43점), 전국 청소년 평균은 2.50점(여성 청소년 2.48점, 남성 청소년은 2.52점)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경남지역의 청소년들은 여가 시간보다는 학업과 일이 우선이라는 인식이 전국 평균보다 다소 높았음. 성별로는 경남의 여성 청소년은 학업과 일, 남성 청소년은 여가시간을 우선시 하는 평가가 다소 더 높게 나타남

그림 2 경남 및 전국 청소년의 일과 여가에 대한 인식

(단위: 점)



* 4점 척도

03. 경남 및 전국 청소년의 진로와 미래에 대한 인식

직업관

■ 경남 및 전국 청소년들의 직업관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질문을 제시하고 4점 척도로 조사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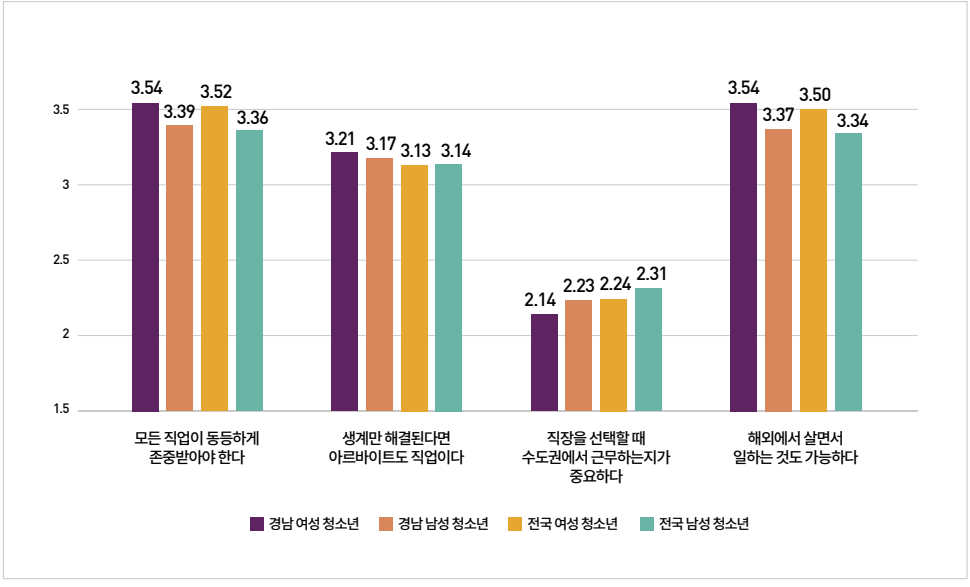
- '모든 직업이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한다'에 대해 경남 청소년은 3.46점(여성 청소년 3.54점, 남성 청소년 3.39점), 전국 청소년 평균은 3.44점(여성 청소년 3.52점, 남성 청소년은 3.36점)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생계만 해결된다면 아르바이트도 직업이다'에 대해 경남 청소년은 3.19점(여성 청소년 3.21점, 남성 청소년 3.17점), 전국 청소년 평균은 3.13점(여성 청소년 3.13점, 남성 청소년 3.14점)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직장을 선택할 때 수도권에서 근무하는지가 중요하다'에 대해 경남 청소년은 2.19점(여성 청소년 2.14점, 남성 청소년 2.23점), 전국 청소년 평균은 2.28점(여성 청소년 2.24점, 남성 청소년은 2.31점)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해외에서 살면서 일하는 것도 가능하다'에 대해 경남 청소년은 3.45점(여성 청소년 3.54점, 남성 청소년 3.37점), 전국 청소년 평균은 3.42점(여성 청소년 3.50점, 남성 청소년은 3.34점)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경남지역의 청소년들은 모든 직업이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하고, 생계만 해결된다면 아르바이트도 직업이라고 보는 인식, 해외에서 살면서 일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전국 평균과 비교 시 다소 높게 나타났음

■ 또한 수도권 일자리에 대한 선호는 전국 평균보다 경남 청소년이 다소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특히 경남 남성 청소년보다는 경남 여성 청소년의 수도권 일자리에 대한 선호에 대해 더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3 경남 및 전국 청소년의 직업관

(단위: 점)



* 4점 척도

04. 경남 및 전국 청소년의 가족과 결혼에 대한 인식

결혼관

■ 경남 및 전국 청소년들의 결혼관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질문을 제시하고 4점 척도로 조사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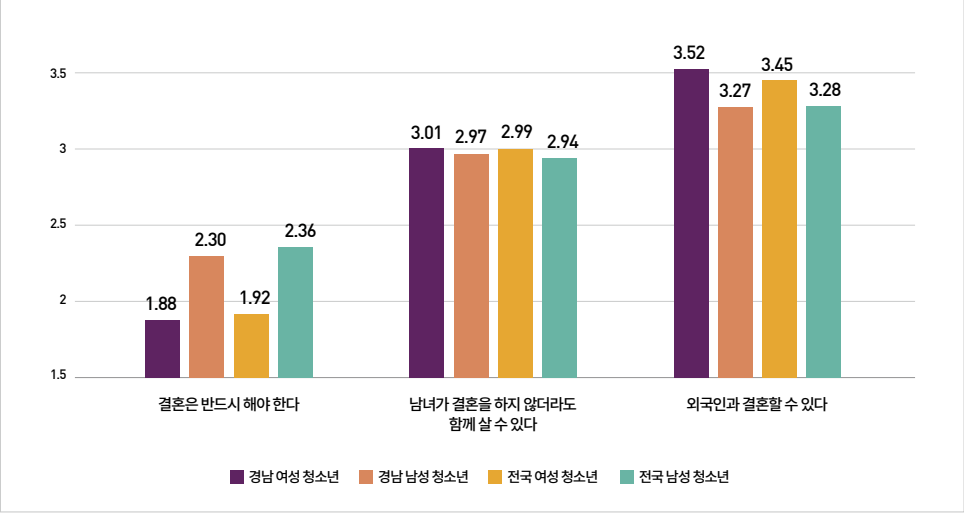
-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에 대해 경남 청소년은 2.10점(여성 청소년 1.88점, 남성 청소년 2.30점), 전국 청소년 평균은 2.15점(여성 청소년 1.92점, 남성 청소년은 2.36점)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에 대해 경남 청소년은 2.99점(여성 청소년 3.01점, 남성 청소년 2.97점), 전국 청소년 평균은 2.97점(여성 청소년 2.99점, 남성 청소년 2.94점)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외국인과 결혼할 수 있다'에 대해 경남 청소년은 3.39점(여성 청소년 3.52점, 남성 청소년 3.27점), 전국 청소년 평균은 3.36점(여성 청소년 3.45점, 남성 청소년은 3.28점)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경남 및 전국의 여성 청소년이 남성 청소년보다 더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남녀가 결혼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는 질문과 외국인과 결혼 할 수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남성 청소년보다는 여성 청소년이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확인됨

그림 4 경남 및 전국 청소년의 결혼관

(단위: 점)



* 4점 척도

자녀관

■ 경남 및 전국 청소년들의 자녀관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질문을 제시하고 4점 척도로 조사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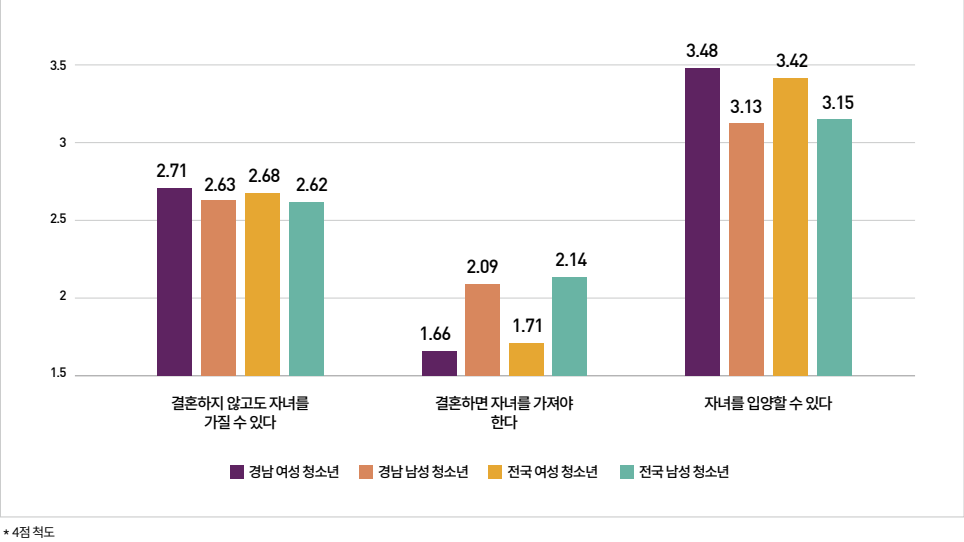
-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에 대해 경남 청소년은 2.67점(여성 청소년 2.71점, 남성 청소년 2.63점), 전국 청소년 평균은 2.65점(여성 청소년 2.68점, 남성 청소년은 2.62점)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에 대해 경남 청소년은 1.89점(여성 청소년 1.66점, 남성 청소년 2.09점), 전국 청소년 평균은 1.93점(여성 청소년 1.71점, 남성 청소년 2.14점)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자녀를 입양할 수 있다'에 대해 경남 청소년은 3.29점(여성 청소년 3.48점, 남성 청소년 3.13점), 전국 청소년 평균은 3.28점(여성 청소년 3.42점, 남성 청소년은 3.15점)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경남지역의 청소년은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질문에 대해 전국 평균보다는 다소 높게 평가했고,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전국 평균보다는 낮게 평가했으며, 특히 경남 및 전국의 여성 청소년의 평가가 남성 청소년 보다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자녀를 입양할 수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국 평균보다 다소 높게 평가했고, 경남 및 전국의 남성 청소년보다 여성 청소년이 다소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그림 5 경남 및 전국 청소년의 자녀관

(단위: 점)



* 4점 척도

양성평등 인식

■ 경남 및 전국 청소년들의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질문을 제시하고 4점 척도로 조사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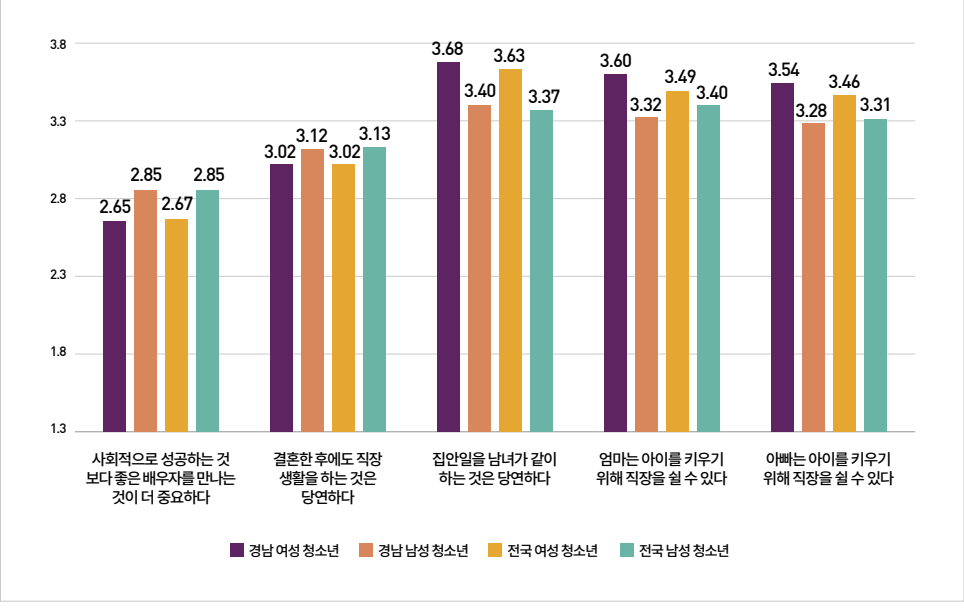
-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보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에 대해 경남 청소년은 2.76점(여성 청소년 2.65점, 남성 청소년 2.85점), 전국 청소년 평균은 2.76점(여성 청소년 2.62점, 남성 청소년은 2.85점)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결혼한 후에도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에 대해 경남 청소년은 3.07점(여성 청소년 3.02점, 남성 청소년 3.12점), 전국 청소년 평균은 3.08점(여성 청소년 3.02점, 남성 청소년 3.13점)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집안일을 남녀가 같이 하는 것은 당연하다'에 대해 경남 청소년은 3.53점(여성 청소년 3.68점, 남성 청소년 3.40점), 전국 청소년 평균은 3.49점(여성 청소년 3.63점, 남성 청소년은 3.37점)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엄마는 아이를 키우기 위해 직장을 쉴 수 있다'에 대해 경남 청소년은 3.45점(여성 청소년 3.60점, 남성 청소년 3.32점), 전국 청소년 평균은 3.44점(여성 청소년 3.49점, 남성 청소년은 3.40점)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아빠는 아이를 키우기 위해 직장을 쉴 수 있다'에 대해 경남 청소년은 3.40점(여성 청소년 3.54점, 남성 청소년 3.28점), 전국 청소년 평균은 3.38점(여성 청소년 3.46점, 남성 청소년은 3.31점)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경남지역의 청소년들과 전국 청소년의 평균을 비교한 결과, 집안일 분담에 대해서는 전국 평균보다 경남 청소년의 점수가 다소 높게 나타났고, 경남 및 전국의 여성 청소년의 더 높게 평가했음

■ 엄마나 아빠가 아이를 키우기 위해 직장을 쉴 수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국 보다 경남의 청소년이 다소 높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경남 및 전국의 여성 청소년이 남성 청소년보다 다소 높은 점수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6 경남 및 전국 청소년의 양성평등 인식

(단위: 점)



* 4점 척도

05. 시사점

■ 경남은 청소년 정책, 청년 정책, 양성평등 정책 수립에 있어 청소년의 가치관 및 인식을 참고하여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 경남 청소년들의 행복감, 직업관, 결혼관, 자녀관, 양성평등 등에 대한 인식을 확인함으로써, 다양한 영역에서 청소년이 유연한 사고를 갖고 있다는 것과 함께 성별에 따른 특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함

■ 먼저, 청소년의 직업관에 대한 조사 결과, 모든 직업이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하며, 생계만 유지된다면 아르바이트도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경남지역 청소년들은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다만 직장 선택에 있어서 수도권에서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국 평균보다는 경남 청소년이 다소 낮게 평가하고 있으며 경남 남성 청소년보다는 여성 청소년이 수도권 일자리에 대한 선호는 낮은 차이를 보임
- 이는 청년 세대의 특히 청년여성의 인구 이동 등과 연계하여 고려해 볼 필요가 있으며, 경남지역 청소년이 지역에서 성장하여 미래를 꿈꾸는 직업을 갖고 청년으로 성장하도록 청소년 및 청년 정책을 연계하여 고려되어야 함

■ 또한, 청소년의 결혼관과 자녀관에 대한 조사 결과,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경남 및 전국의 여성 청소년이 남성 청소년보다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더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남녀가 결혼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는 질문과 외국인과 결혼 할 수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남성 청소년보다는 여성 청소년이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 등의 조사 결과, 집안일 분담과 엄마나 아빠가 아이를 키우기 위해 직장을 쉴 수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경남 및 전국의 여성 청소년이 남성 청소년보다 다소 높은 점수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남
- 이렇듯 행복감, 직업관, 결혼관, 자녀관, 양성평등 성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청소년의 양성평등 의식과 태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정책의 수립 시 양성평등에 관련된 과제를 추진하고 확대할 것을 제안함

참고문헌

- 민보경, 박성원, 성문주, 강정인, 김연숙, 손현주, 강경균. (2019). 청소년 미래선호가치 설문 조사 기반 연구. 국회미래연구원.
- 오해섭, 문호영. (2020). Z세대 10대 청소년의 가치관 변화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임성근, 박준, 이광희, 이종한, 은재호. (2022). 대전환기 국가 역할 재정립과 정부운영전략 탐색 보고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임희진, 황여정. (2023). 2023 청소년 가치관 조사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최윤정, 박성정, 김은경, 김인순, 김애라, 김효경, 박민주. (2020). 또래문화를 통해 본 청소년의 성평등 의식과 태도 연구(Ⅰ). 남녀 청소년의 또래문화와 젠더의식 격차 비교. 한국여성정책연구원.